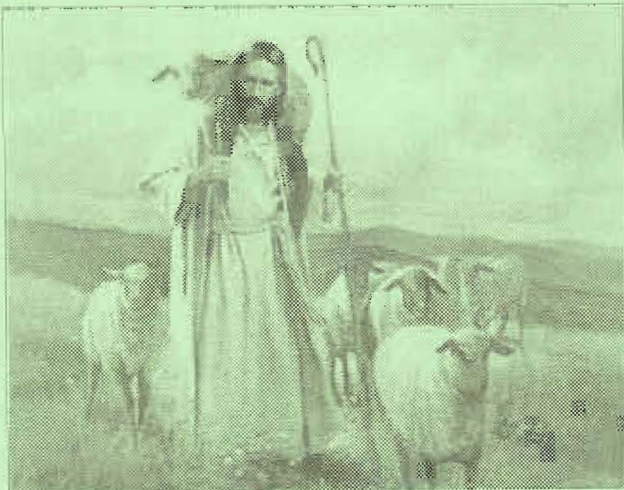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4주일 · 순교자 성월
제33권 42호(다해) 2013-9-15

[묵상]



"나와 함께 기뻐해주시요.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죄인들을 보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투덜거리는 마음,
길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마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투덜거림은
자신들의 눈 속에 든 들보를 두고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함입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하늘나라의 알 수 없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더 큰 기쁨이랍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기 위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것은
착한 아흔아홉 마리 양의 힘입니다.
목자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더 좋은 몫이 아닐까요.

하느님 나라의 계산법을 깨우치지 못한
바리새리와 율법학자들은
영원히 착한 목자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녀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녀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파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홍찬기 대건안드레아 & 심재순 (생)
주 일 낮 미사	(연)강덕희 올리아나, 이종민 베드로,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유정복 베네딕다,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한태호, 김풍길 바오로, 정학순 발바라, 조셉리 & 마리아 석은, 김형태 야고보 (생)이윤조 클라라, 김영길 안드레아 & 복희 로사리아, 박인규 요셉, 조은하 올리아나, 이남호 사라, 이상수 다니엘,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2,7-11,13-14

화답송 ①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①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엽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①

제 2독서 티모테오 1서(1Timothy) 1,12-17

복 음 ①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①

복 음 루카(Luke) 15,1-32<또는 15, 1-10>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39	159	126
봉헌	255	261	257
성체	424	309	309
파견	339	343	339

올바른 성모신심

시작하는 말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는 그리스도교 제자 공동체까지 소급된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 요한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7) 고전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 마리아께서 제자들과 함께기도하시며 활동하셨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사도)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하였다.”(사도 1,14)

한국 가톨릭 교회도 초창기부터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공경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로사리오)이다. 본당에서 성모 성월에 열리는 성모의 밤 행사뿐 아니라 성모 성지 순례나 성모 공경 행사에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가톨릭신자 가정에는 예외 없이 성모상이 있다.

한편으로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마리아교’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일찍이 성모 공경을 하느님 흠숭과 구별하였다.[☞1. 하단참조]

실제로 이러한 구별은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는 “저희의 기도를 허락주소서.”로 기도를 맺는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또는 “저희의 기도를 전구하여 주소서.”라는 문구로 맺는다. 그로써 기도가 향하는 마지막 상대자가 바로 하느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정당한 성모 공경이 일부 잘못된 성모 신심과 교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모 공경의 역사와 교의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밝히고, 또 한편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톨릭 신자들의 잘못된 성모 신심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성모 공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윤형중, 『상해 천주교 교리』, 가톨릭출판사, 1990년, 35-45면 참조.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리는 하느님 흠숭과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공경을 구별한다. 하느님께서는 흠숭지례(欽崇之禮)를,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성모 마리아에게는 상경지례(上敬之禮)를 드린다고 가르친다.]

<◆계속>

2011년 9월18일(주일)부터 약 2년동안 본란에 연재해온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권고 ‘주님의 말씀’이 지난주일(2013년 9월8일)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주일(15일)부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CBCK)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올바른 성모신심’을 연재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커다란 식물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우아하게 쓰다듬으며 푸른 나무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헤어제품을 쓰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발에 대해 더할 수 없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소중하니까”(Because I'm worth it)라고 말합니다. 이 간절한 문구는 상품광고의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평가절하되어 온 여성의 자의식과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오늘의 복음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도입부에서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지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들은 세상이나 인간의 변화에 대해 거부하면서, 세리나 죄인들은 격리된 채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리나 죄인들도 소중하며, 이들이 변화하고 회개하여 모든 이들이 당신 품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 백 마리를 가진 남자가 길 잃은 양 한마리를 찾아나섭니다. 은전 열 닢을 가진 여자가 사라진 한 닢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에서는 하느님의 마음을 여성의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남성 중심 사회였던 당시로써는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지난 사순 제4주일에 이미 봉독되었기에 올해 두 번이나 듣게 되는 셈인데,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남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기어이 찾아내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루카 15,5)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루카 15,8 참조) 찾아내고는 그 기쁨을 친구와 이웃들과 나눕니다. 마지막 비유는 더욱 극적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으니, 이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행동입니다.

이랬던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자 먼저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루카 15,20 참조) 반지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루카 15,32 참조)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여 기쁨을 표현합니다.

길 잃은 양, 사라져 버린 은전, 집 떠난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수난을 겪으시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자화상

허리를 숙이는 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건 궁색해서가 아니며 무릎을 꿇는 건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고마워도 그러하고 미안해도 그러하며 용서를 청할 때도 그러하여 사는 내내 허리를 펴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기가 쉽지 않음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엄영숙 마리아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김교복 래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순교자
성월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19일(목)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2일(주일:본당의 날)

- ◆ 제72차 남가주 한인 M.E.부부 첫주말 수료자 환영식
 - 본당에서 5커플 참가 : ♥김종산 요한 & 현희 헬레나
 - ♥정치영 프란치스코 & 종미 클라라 ♥김명 베드로 & 선이
 - 아네스 ♥윤중원 안드레아 & 정자 아가다
 - ♥곽호식 안드레아 & 인숙 오틀리아
 - 일시 : 오늘 주일(15일) 오후 6시30분 강당
 - 연락처 :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율리아 ☎(310)780-9055

-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9월부터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 남가주 한인가톨릭 청년연합회 2013 성경퀴즈대회
 - 일시 : 9월21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2040 아테시아, 토런스)
 - 성경범위 : 사도행전, 바오로서간 전체
 - 본당에서 작년에 우승한 배론청년회가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 한가위 맞이 요셉회 약의 찬목모임
 - 일시 : 9월21일(토) 오전10시 라이언관(셋째주일 모임대신)
 - 차편준비 : 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성당 주차장
 - 부부동반 참석(푸짐한 음식과 선물 준비)

- 문의 : 정기는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 맞아 감사행사
 - 일시 : 9월27일(금) 저녁미사후 * 장소 : 강당
 -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 LA대교구 다민족·다문화축제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28일(토) 오전 9시30분
 - 미사집전 :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가능한 한복을 입으시고 오전 9시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문의 : 예영해 프란치스코 종신부제 ☎(213)249-2127

-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 26차 남가주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 비치중
- ◆ 친교자리 배식때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순서를 양보합니다.
 - 지난주부터 소공동체가 봉사하는 친교자리(점심나누기)가 재개했습니다. 줄서서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간혹 무질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15일(주일) : P.V. 2/4반(제육덮밥과 상추쌈 \$3) 주일학교(11학년 짜장밥)
 - 9월22일(주일) : 본당의 날, 전신자 점심나누기 (육개장 PV 3반 봉사) 주일학교(10학년 샌드위치)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기정	김대우	김상근	김양금	김영경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재희	김찬구	김형순
	김효진	노혜숙	모은기	박영룡	박영희	박완철
	박정희	배태임	엄정자	원건희	이경수	이귀분
	이상석	이영희	이일길	이태옥	이형삼	이효세
	장영우	전정자	정규숙	정남형	정동호	정정현
	주용순	최기남	최영신	최의수	최지영	최진수
	한창주	한혁수	홍광선	합계 : \$4,945		
	주일미사 헌금 : \$3,067					

성전헌금	김기정	김대우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재희	김찬구	김효진	노혜숙	모은기	박영룡
	박완철	박정희	엄정자	원건희	이경수	이귀분
	이상석	이영희	이형삼	이효세	장영우	정규숙
	정동호	정정현	주용순	최기남	최영신	최진수
	한창주	한혁수	홍광선	합계 : \$2,985		
	한남체인 도네이션 : \$31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수업(교리)시간 및 2차등록 접수

- 학생미사 끝난후 오전 10시30분~낮12시
- 주일학교 2차등록 접수: 첫째 \$140, 둘째 \$120, 셋째 \$100(셋째 무료), * 자모회비: \$50(가정당)

◆ 주일학교 복사단 모집

- 대상: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첫영성체한 3학년이상
- 첫모임: 9월21일(토) 오후 5시 성전(기존단원, 부모 꼭참석)
- 시험: 주모정, 사도신경(니체아신경 중 택일) 암기

◆ 주일학교 인턴교사 모집

- 대상: 대학교 2학년이상 남녀학생
- 접수: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e메일로 접수
pius103ss@gmail.com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가톨릭신자로서 영어가능한 남녀교우(무경험도환영)
- 문의: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찬양 SOEL 밴드 단원모집

- 대상: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7학년 이상
- 모집분야: 드럼, 제1기타, 남성보컬
- 오디션: 9월22일(주일) 낮12시 2층 교사실
- 문의: 데이빗 황 음악교사 ☎(310)956-2612

◆ 견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 대상: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수업일시: 9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강당
- 문의: 신동윤 반첸시오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신현화 헬레나 213-200-9538 9/6(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701-6343 9/14(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3(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레오도시오 780-3258	김교복 레오 328-1827 9/15(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형삼 요셉 375-7397 9/14(토) 오후 6시
	3	장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9/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9/20(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4(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동호 하삼마오로 404-1607 9/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대종 다니엘 818-640-3656 9/2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9/13(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리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9/7(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민희석 요한 818-1799 9/7(토) 오후 6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김선재 바오로 617-3568 9/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 제17회 남가주한인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 전시기간: 9월14일~27일(금)
- 장소: Lee & Lee 갤러리(3130 월서블러바드 #502, LA)
- 지도신부: 김해원 가브리엘 신부
- 문의: 회장 제인 장 (818)667-2877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9월21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 장소: LA 작은 예수회 장예시절(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제14회 말씀의 초막절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 일정: 9월22일(주일)~28일(토)
- 개막미사: 22일 오후 4시, 주례사제: 김기현 알렉스 신부
- 주간예절: 23일~27일
- 강의: 28일 오전 10시~오후 4시(제병영 가브리엘 신부)
- 폐막미사: 28일 오후 4시
- 주관: 남가주가톨릭성서 모임(CBLM)
- 장소: 6751 Western Av. 부에나팍 ☎(714)521-1345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복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가본 적이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펼치고 가야할 길을 찾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과 함께 사는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잘못된 자유의 남용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 미로로, 습지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집트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편안한 시절은 빨리 지나가고 압축의 종살이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뻗치고,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탈출 13,21) 하느님께서 함께 하기에 이스라엘은 노예의 땅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육체적 노예에서 벗어나 공간적인 자유를 확보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에게 영적인 자유를 위한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고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 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선물은 바로 하느님 자신과 당신의 거룩한 뜻을 주신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59항)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께서 직접 써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6-40 참조)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구약의 법과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하느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돌 판에 새겨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계명을 쓰신 분은 한 분이시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해 바다를 향해 흐르는 한강은 오천 년 이상 단 한 번도 백두대간을 거슬러 흐른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 문명

이 발달하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심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도록 십계명을 삶의 지도로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의 십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72항)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나 잊혀져간 십계명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십계명과 복음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살리라.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잠언 7,2)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 연도(제사)를 망자의 사망일에 맞춰지내라고 하는데,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사는 사망 하루 전날에 지내지 않습니까?

연도와 제사 모두 돌아가신 날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전통에 따른 시간 계산법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자시(오후 1시부터 오전 1시)로 보았으며 이 시간에 혼령이 다닌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밤 11시경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혼백에 대한 도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이 시간대의 제사가 용이치 않았던 관계로 9~10시경으로 당겨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하루 전날에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혼령이 지상을 드나든다는 잘못된 생각과 혼령이 후손들의 ‘예’를 받는다는 설을 거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란 제사가 죽은 혼령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미신적 생각을 뽑아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망자의 영혼이 지상과 천상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영혼’이 아니라 천국이나 연옥, 지옥에서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사는 후손들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가톨릭 교회는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망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연미사의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미사를 통한 빛의 선물이 죽은 이들에게 가장 귀한 보은의 제사입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 서로 인사 합니다. ◎